

# 세플러+윈

VOL. 75 / WINTER 2024



## Ownership & Archiving

나로부터 시작되는 도전과 열정의 기록,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더욱 창대하게,  
함께 커갑니다. 혁신의 미래, 우리 모두의 미래.

**SCHAEFFLER**

# Contents



**세플러의 기어박스**

"EV의 전기 모터에서 생성된 토크와 속도를 변환하여 구동축에 전달하는 기어박스. 더 조용하고 부드러운 주행에 도움을 줍니다."



존재 하나하나가 빛나는 주인공 OWNERSHIP  
기록이 쌓여갈수록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힘 ARCHIVING



<세플러+원>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세플러코리아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세플러+원>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전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발행일** 2024년 1월 15일(통권 제75호)  
**발행인** 이병찬  
**편집인** 윤솔지  
**발행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1 32F  
**기획·디자인** PEOPLE PAGE(대표전화 02.6674.0111)



**Ownership**



**10 S-Spirit**

일하고 싶은 회사,  
사랑받는 기업의 조건  
기업가 정신 경영

**12 Ask Leader**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등불이 되어  
김문겸 BD장

**16 Schaeffler's People**

ESG 경영 시너지 창출에 기여  
서형진 팀장

**20 Schaeffler Story**

열정 가득했던 그날의 우리  
2023 창원공장 노사화합 체육대회

**26 Our Hero**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심으로  
더 큰 성장과 새로운 기회 창출  
물류



**Archiving**



**34 I'm**

(맨파워 수집가)입니다  
송인제 마스터

**38 New Face**

다시 시작하는 여행,  
우리들의 새로운 이야기  
안산공장 신규 입사자 3인방

**42 GOD生 Project**

한 해의 끝자락에 남긴  
우리들의 행복한 추억 한 장면  
안산공장 6인의 글라스 페인팅 체험



**Schaeffler Ground**



**48 Schaeffler #가훈챌린지**

새날의 이정표,  
다시 한번 아로새기며

**52 Schaeffler Headline**

**55 Thanks & Quiz**

## 임직원 여러분,

크리스마스와 새해의 시작을 앞두고, 이 자리를 빌려 임직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와 뛰어난 성과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 몇 개월 간 고조되는 지정학적 긴장감과 시장 변동성으로 도전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연일 보여주신 헌신적 노력 덕분에 세플러는 최고의 글로벌 모션 테크놀로지 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고객에게 받은 상들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 높은 품질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세플러는 e-모빌리티, 새시와 같은 미래 지향적 분야에서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이러한 비즈니스 영역들은 아직까지 충분한 수익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전통적인 파워 트랜스미션, 애프터마켓, 산업기계 또는 베어링 비즈니스 등에 관계없이 올해의 결과는 우리의 강력한 핵심 비즈니스가 기업의 성공과 뉴 모빌리티로의 전환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가 정신으로 행동하는 가족 주주로서 회사가 더욱 발전하고 장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플러가 고객을 위한 모션 및 모빌리티를 구체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잠재력과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세플러와 비테스코의 합병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두 회사는 모두 혁신을 주도하고 지속가능성을 실천하는 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e-모빌리티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인 기술과 역량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세플러와 비테스코 모두 유의미한 기회와 가능성을 새롭게 창출하여 시장 변화를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사결정은 매우 신중했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과 과업들도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두 회사가 서로 짜임새 있고 목표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자인 게오르크 세플러 박사와 빌헬름 세플러 박사가 이룩한 선구적인 업적에 이어 LuK와 FAG까지 성공적으로 인수하면서 두 설립자의 일생의 업적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후 2009년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2015년에 IPO를 지나온 끝에 회사 역사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에 보여주신 여러분들의 우수한 성과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세플러의 핵심 가치인 혁신, 열정, 우수성, 지속가능성에 부응하는 동시에 시작된 변화의 여정에 동참하여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원 여러분 모두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행복한 연말 보내고, 힘차게 새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4년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리아-엘리자베스 세플러-투만

게오르크 F. W. 세플러

## 안녕하십니까?

푸른 용의 해,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2024년은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OVID-19로 촉발된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은 2022년 팬데믹 종식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으며, 세계 각지에서 국가 간 혹은 지역 간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국지적 분쟁 및 블록화가 새로운 글로벌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를 빠른 속도로 촉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30년간의 성장체제에서 벗어나고 있는 가운데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도 급격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 COVID-19가 한창일 때 이미 이러한 전환에 맞춰 Schaeffler Korea Value Creation 전략이 입안되었습니다. 가치 중심의 사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존의 양적 성장모델에서 과감히 탈피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반 활동들이 실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까지 Schaeffler Korea 모든 가족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성공적으로 Value Creation 전략이 완수되었으며, 새로운 전환기에 능동적으로 성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기초체력을 갖추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응집된 힘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새로운 개발능력, 새로운 제품가치, 새로운 운영방식 또 새로운 기업문화를 아우르는 **Korea New Growth 전략**의 첫 도약을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실시할 것입니다.

New Growth 전략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완성될 것입니다. 성능 - 품질 - 원가 등 하드웨어적 특성에 중심을 두었던 우리의 기존 활동은 고객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으로 통합 프로세스화됩니다. 즉, 좋은 제품을 싼 가격으로 만들어 제때 공급하기만 했던 단순한 사업활동에서 나아가 고객과 함께 비즈니스를 개발하고 혁신하는 주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은 우리 제품의 하드웨어적 탁월성뿐만 아니라 시스템부터 부품 그리고 소재까지 관통하는 초월적인 기술역량, 신뢰성을 갖춘 매력적인 제품 및 기업 이미지 가치가 발현됨으로써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는 원가를 무기로 하는 저가 제품들과 더 이상 소모적인 경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는 K-Culture와 함께 앞으로는 K-Schaeffler를 만들어 내는 역량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2024년은 다음과 같은 활동으로 New Growth의 첫발을 내딛고자 합니다.

### 첫 번째, 성공적인 기업 통합과 회사 형태의 변화를 이루어 내도록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듯이 Vitesco에 대한 인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경영설명회를 통해 앞으로 재편될 4개의 사업부 구조에 대해서도 소개 드렸습니다. Vitesco와의 사업 통합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계 및 전장부문에서 가장 성공적인 두 회사의 결합으로, 사업 규모와 내용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한 더욱 강력한 미래지향적 회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양사의 협업 문화를 강화하고, 각 부서와 기능, 지역을 넘어선 팀플레이를 실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함께하면 더 강해진다(Stronger Together)”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시너지를 통해 Schaeffler가 시장을 리딩 하는 모션 테크놀로지 기업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한편 산업자동화 부문을 강화할 목적으로 인수한 리니어 모션 솔루션 전문기업 Ewellix의 통합, SMB 부문의 연내 법인 독립 등과 같은 변화도 능동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적, 조직적 변화를 보다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더 경쟁력 있는 이른바 **New Schaeffler Korea**를 만들어가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새로운 성장의 토대가 되는 비즈니스 전환을 더욱 가속함과 동시에, 새로운 가치 창출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신규 비즈니스 수주의 중요성은 매해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문의 경우 e-모빌리티를 비롯한 전 사업 부문이 우리의 대고객인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여타 K-OEM, 나아가 Global OEM에 대한 선제적인 수주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산업기계 부문은 고 정밀 베어링, 로보틱스, 컨디션 모니터링, 수소, UAM 등 차세대 주요 산업으로의

사업 확장을 실현해야 합니다.

애프터마켓 부문은 SNAP아이템 개발과 Make & Buy 를 통한 국산 차 부품 개발, E-커머스를 활용한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우수한 기술력만을 내세워 고객을 설득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단순 가격경쟁으로 밀어붙이던 시대도 저물고 있습니다. 진화된 고객들은 Product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에 맞춰 K-Schaeffler에 대한 브랜드 신뢰감을 형성하고, 영속성 있는 Value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2030년까지의 장기적인 가치 중심 성장 플랜이 수립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세 번째, 창원공장을 중심으로 운영 및 제도의 혁신을 이루어 내도록 합니다.

창원공장의 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여러 해에 걸쳐 검토된 사업성 및 수익성 확보 계획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제조 부문 합리화뿐 아니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제도와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정비하여 운영방식의 재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효율성을 최대화해 민첩성과 수익성을 고루 갖춘 경쟁력 있는 공장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 네 번째, 실질적인 지속가능성 경영을 실천하도록 합니다.

기업에 ESG는 더 이상 논외로 둘 수 없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고객과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ESG 평가, 실사와 같은 요구사항이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ESG 이행 여부가 사업 수주를 결정짓는 주요 항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작년에 구성된 ESG TFT를 필두로 더욱 적극적인 ESG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를 통한 100% 전력 충당, 재해 발생률 감소, 담수 절약 등 우리 앞에 놓인 목표들은 여전히 도전적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로드맵을 구체화해 성과 지표의 면밀한 측정과 성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여성 리더십을 비롯한 조직 내 다양성을 확보해 유연한 사고를 장려하고, 성숙한 세대교체를 통해 수평적인 소통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포용적인 조직문화는 유능한 인재의 유입과 성장을 뒷받침해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형성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2030년에 이르는 지속가능한 가치 중심의 성장 로드맵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2024년은 새로운 성장을 위한 전환점이자 모멘텀입니다. 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시장을 선도하는 모션 테크놀로지 기업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노력과 헌신이 모여 Schaeffler Korea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힘찬 발걸음으로 시작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2일  
세플러코리아 대표이사 이병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으로서  
주체적으로 삶을 설계하고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조직 생활에서  
주인 의식은 '기업가 정신'으로 일컬어집니다.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가  
정신은 곧 조직의 발전과 혁신으로 이어지며,  
결국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까지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에 회사는 끊임없이 구성원들에게  
성장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구성원들은  
자발적 동기 부여를 통해 책임 의식, 주인 된  
의식으로 업무를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  
의식, 기업가 정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조직이  
지속가능한 성공 스토리도 써 나가는 법입니다.



# OWNERSHIP

# 일하고 싶은 회사, 사랑받는 기업의 조건

## 기업가 정신 경영

출범 초기부터 지금까지 세플러코리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바로 임직원 여러분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세플러코리아는 직원을 가장 중심에 두고, 자기계발 기회 부여, 다양한 복지혜택 지원 등을 통해 직원 개인의 열정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원 스스로가 일하고 싶은 회사, 사랑받는 기업으로 탈바꿈하며 백년지대계를 열어가는 배경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세플러코리아가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에 선정(2021)’된 것은 노사가 동반 성장하는 경영 방침과 함께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직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였습니다. 이를 이루는 배경에는 세플러코리아의 기업가 정신(Ownership) 경영이 있습니다. 조직을 이루는 구성원 각자의 주인 의식이 클수록 회사의 성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실로 엄청납니다. 이를 잘 알기에 세플러코리아는 직원들을 단순히 노동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챔피언이며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진정한 주인공으로 바라봅니다. 또한 직원 개인의 열정과 목적이 일치하도록 다양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주인 된 의식을 더욱 키우고, 이를 통해 회사의 지속가능한 미래까지 내다봅니다. 그렇다면 세플러코리아는 과연 어떻게 직원들의 참여와 열정을 응원하는지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세플러코리아는 임직원들에게 더 나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플러코리아가 글로벌 기업으로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나가는 이유이자 배경입니다. 2024년에도 세플러코리아는 변함없이 여러분의 편에서 더 큰 성장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는 한 가족, 여러분이 주인공

#### 장기근속 임직원 대상 각종 포상 혜택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는 임직원이 회사의 성장과 오랜 기간 함께함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에 세플러코리아는 매년 평균 70~80명의 장기근속 직원에게 각종 포상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도 함께 지원함으로써 “우리는 한 가족”임을 챙기고, 우수한 인재의 행복한 가정생활과 더불어 변함없는 근무를 장려합니다. 이는 세플러코리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최대 장점 중 하나가 됩니다.

- 10년 근무한 임직원에게 순금 10돈 메달과 유급휴가 3일 제공
- 20년 근무한 임직원에게 순금 20돈 메달과 유급휴가 5일 제공 및 배우자 포함 해외여행 지원
- 30년 근무한 임직원에게 순금 30돈 메달과 유급휴가 5일 제공 및 배우자 포함 해외여행 지원

#### 직원과 가족의 건강지킴 지원제도

세플러코리아는 모든 임직원의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직원과 가족 구성원 모두 세플러코리아의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포괄적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워라밸이 중시되는 요즘, 이는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 전체의 건강한 기운으로 엮여지며 지속가능한 기업 성장 스토리를 써 나가는 세플러코리아의 신성장동력이 돼주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각종 동호회 활동 지원의 경우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장도 됩니다.

- 재직 1년 이상 임직원에 대해 격년 1회 기준 종합 건강검진 지원 (50세 이상 임직원은 연 1회)
- 2024년 1월 1일부터, 직원의 40세 이상 배우자에 대해서도 격년 1회 종합 건강검진 지원
- 사업장별 축구·농구·야구와 같은 구기종목뿐만 아니라 E-sports·산악회·바둑 등 각종 동호회 활동 지원

#### 외국어 학습 지원 제도

세플러코리아는 인도, 싱가포르,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독일과의 협업을 위해 외국어, 특히 영어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직원들의 부담이 큰 만큼 외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도 높습니다. 세플러코리아는 이를 위해 오래전부터 외국어 학습 지원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제2 외국어에 대한 도전과 열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함께 성장하고 도전해 나갈 서로의 미래에 끊임없는 자양분이 돼주고 있습니다.

- 외국어 학습비용의 50% 지원 (학습비 기준 월 최대 30만원, 지원비 최대 15만원)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 최대 6개월 지원
- 일본어·독일어 같은 제2 외국어의 경우 사업부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학습비용 100%(월 최대 30만원) 지원

# BD Engine & Transmission System

김문겸 BD장 BD 엔진 & 트랜스미션 시스템

##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등불이 되어

요즘 잘 나가는 영화를 보고, 인기 유튜브 채널을 보고, 그런 사소한 일상마저도 다양한 맥락에서 관찰함으로써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회복력과 진정성, 목적의식, 비전 등을 불어넣어 주는 사람. 우린 그런 사람을 가리켜 리더라 부른다.

BD 엔진 & 트랜스미션 시스템을 이끌고 있는 김문겸 상무. 매일 아침 7시 30분이 되면 그의 목적하고도 온화한 존재감이 세폴러코리아 안산공장을 뒤덮는다. 27년간 한 회사에서 한결같은 걸음으로 걸어온 길이다. 1996년 산업기계 부문 영업사원으로 입사해 2005년 자동차 TM & 샤시 부문 영업을 거쳐 2011년 전략기획팀 일원으로서 12년간 다양한 전략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스테이크홀더를 유기적으로 잇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다 지난 2023년 8월부터 BD 엔진 & 트랜스미션 시스템 사업부장으로서 안산공장을 포함한 사업부 전체 비즈니스를 총괄하며 세폴러코리아의 한 축을 이끌어 가고 있다.

“저는 어느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구성원들에게 영감을 주거나 조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걸어 들어가는 길목마다 조용한 에너지는 피어난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아침이 거듭될수록 그 에너지는 더 크고 뚜렷해져 간다.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 하나 된 모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된 모습은 어떤 변화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각 팀의 목표가 회사의 목표와 부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문겸 상무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구성원들을 향해 끊임없이 공감과 이해로 다가가려 노력한다. 그가 생각하는 리더의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 능력이다.

“훌륭한 리더는 회사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필요한 역량은 소통입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믿을 수 있는 동료로, 때로는 같이 웃고 즐길 수 있는 선배로, 또 때로는 친한 동네 형 같은 사람 냄새 나는 모습으로 다가가 그들의 말과 행동에 귀 기울이고 함께 얘기를 나누며 힘을 북돋아 주려 노력한다.

“소통은 신뢰와 협업의 구조를 하나로 잇는 핵심입니다. 서로에게 투명하고 진심 어린 대화가 이뤄질 때, 회사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유익한 토대도 마련됩니다. 사업부에서 매주 화요일 아침마다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프로젝트별 전략회의 등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 8시간 중 4시간 이상은 미팅을 준비하고 회의하는 데 소요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나머지 시간에서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최대한 할애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령 아침에 출근해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도 대화의 물꼬를 트는 자리가 됩니다. 퇴근 후 회식 자리를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이렇듯 회사의 발전 방향에서, 구성원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빛나는 등불처럼 밝혀주는 것이 제가 맡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자병법에서는 장수들의 성향을 용장(勇將), 지장(智將), 덕장(德將), 복장(福將)으로 구분하였다.

“그간 저는 많은 리더들을 살펴보면서 손자병법에 나오는 네 장수의 유형에 비추어보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쪼록 하나의 방면이 아닌, 여러 방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리더가 되고 싶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좋은 리더에 대해서는 많은 덕목이 요구되지만, 김문겸 상무는 특히 다음의 몇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는 비전과 계획입니다.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비전을 공유하며,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합니다. 둘째는 의사소통입니다. 팀원 및 조직 내외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서로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팀원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셋째는 투명성과 공정성입니다. 모든 보상은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과 팀의 성장을 촉진하는 마인드셋이 필요합니다.”

그에게도 신입사원인 시절이 있었다. 그러다 전략기획부서로 옮겨간 이후 업무에 큰 변화가 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다. 회사의 전략을 수립하고 다방면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른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얻는 결과가 큰 성취감을 안겨 준다는 점이다. 더욱이 회사가 그의 노력을 알아주고, 그 또한 회사에 기여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오늘날까지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회사의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로서 길을 함께 열어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김문겸 상무는 구성원 개인마다 주인 의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각자가 맡은 일에 대해 ‘내가 이 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 현대에 있어서 진정한 주인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인 의식은 회사의 생산성, 직원 만족도,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다만, 사회와 세대의 변화를 고려하여 개념이나 주인 의식을 함양하는 방법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즉 회사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다니고 싶은 회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명확한 비전과 보장된 미래가 제시되어야 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공정하게 하며, 책임 이전에 합당한 권한이 위임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일과 생활의 분리를 보장하여 업무를 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했을 때 비로소 회사의 성장과 혁신의 원동력이 되는 조직원들의 주인 의식이 발현됩니다.”



## BD Engine & Transmission System

세플러인 모두에게 새로운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대함은 그 두려움에서 태어난다는 말이 있듯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상호 신뢰와 팀워크를 바탕으로 기회는 취하고, 위기는 잘 대처하다 보면, 세플러인 모두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을 거로 확신합니다.

김문겸 BD장

이런 세심함과 포용성을 장착한 그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남다른 기민함과 통찰력도 보인다. 그가 총괄하는 BD장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전동화로의 전환에 있어 가장 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여기서 김문겸 상무는 단언컨대 확신한다. 사업부 전체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그 어느 부서보다 뛰어난 팀워크로 목표 전략을 잘 수행해 낼 수 있다고 말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조직은 규모가 큰 기업이 아니라 변화를 즐길 줄 아는 조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감히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말도 있죠. 그렇기에 저는 구성원들에게 누누이 말합니다. 최대한 즐기면서 일을 하라고 말이지요. 지금의 어려움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항상 즐겁게, 진취적으로 일하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의 호쾌한 답에서 리더의 깊은 통찰력과 복잡한 상호작용에 대한 예리한 이해가 읽힌다. 이를 통해 조직 전체에 끊임없이 영감을 주고, 공동의 비전을 추진해 나가는 그의 리더십에 실로 아낌없는 신뢰와 지지가 보내진다.

“새로운 모든 것은 두렵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위대함은 그 두려움에서 태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플러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상호 신뢰와 팀워크를 바탕으로 기회는 취하고, 위기는 잘 대처하다 보면, 세플러인 모두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을 거로 확신합니다.”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했던가. 그가 현재의 위치에 올라 보다 나은 리더의 자세를 지향함은 세플러코리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 그가 지금은 세플러의 내일을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려 하고 있다.



# Business Development Automotive Tech. & ESG Initiative TFT

서형진 팀장

## 지속 가능한 나와 우리 모두의 미래 ESG 경영 시너지 창출에 기여

조직 공동의 목표에 따라 다양한 이익 도출 관점에서 업무 활동을 벌이는 이가 있다.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 스토리에 주체적 역할로 참여함으로써 개인의 발전을 넘어 조직 전체의 더 나은 발전을 그려 나가는 ESG Initiative TFT 서형진 팀장을 만나 그 이야기를 들어봤다.

세플러코리아 임직원들에게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자동차 사업기획과 ESG TFT 소속으로 일하고 있는 서형진 팀장입니다. 2015년 2월 전략기획으로 입사해 2017년부터 자동차 사업기획팀, 2023년 7월부터는 ESG TFT 겸직으로 소속돼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력하고 계신 업무 영역에서 주요 역할을 소개해 주세요.  
세플러 그룹은 2040년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패러다임 변화 및 고객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구매·친환경생산·친환경제품이라는 세 가지 대주제를 기반으로, 모든 부서가 연동된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사에 걸쳐 유기적으로 연결된 ESG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들의 최대 화두가 ESG 경영입니다. 기업에서 말하는 ESG 경영이란 무엇인가요?  
기업에 있어서 ESG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은 회사도 주변 환경이 무너지면 존속할 수 없습니다. 공존하는 환경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동시에 산업별 리스크를 진단하고,



미래를 위해 한걸음 먼저 준비하는 것, 더 나아가 이러한 변화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것이 ESG 경영의 핵심입니다.

**세플러코리아에서는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어떤 로드맵을 실천 중인지 소개해 주세요.**

그룹 차원의 로드맵에 맞춰 2030년까지 기후중립 생산, 2040년까지 기후중립 공급망 실현이라는 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까지 그룹의 현황 파악에 주력해 총 11개의 프로젝트를 도출해 냈고, 이를 토대로 TFT 멤버분들과 함께 세부적인 업무 협업을 이어 나가는 중입니다. 이 외에도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더욱 발전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SG TFT가 구성된 지 4개월 정도 지났기에 앞으로 만들어 나갈 성과는 더 많을 것입니다.

**팀에서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ESG TFT 내에서 현재 가장 바쁘게 활동하고 있는 팀은

재생에너지 구매팀입니다. 세플러 그룹은 2024년부터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100% 수준으로 끌어올려 전력을 충당해야 합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 실행하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큰 목표입니다. 각 공장 담당자분들과 구매·전략기획·사업관리 등 여러 부서원분들의 협업을 통해 제안서를 마련했고, 공장별 세미나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24년에는 재생에너지 구매 타깃 달성을 넘어 장기적인 PPA 계약을 실제로 진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평소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문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사 전체 밸류 체인 내에서 내가 혹은 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업무를 할 때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고, 타 부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회사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게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선택과 결정으로 고민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 최선의 선택은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실까요?**

먼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일차적으로 내 선택과 결정에 스스로 납득이 가는 수준까지 지식을 쌓은 다음, 주변 동료들의 생각을 경청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충분히 쌓는 이유는 제가 내린 결정에 책임을 지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를 함에 있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주인 의식(Ownership)’이 개인적으로나 업무적 차원에서 어떤 효과를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과도 달라지겠지만, 성과를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훨씬 즐거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 시킨 업무가 아니라, 내 영역이고 내가 이 업무를 잘 해낼 때 내가 가진 가치는 더 올라가고 업무 몰입도 또한 더욱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주인 의식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주인 의식은 곧 개인의 전문성을 나타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업무 결과물의 가치가 클수록 회사에 도움도 되지만 개인의 가치도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나한테 주어진 업무라는 수동적인 마음보다 나는 이 업무에 있어서 다른 수준의 전문성을 보여주겠다는 적극적인 마인드가 업무에 대한 주인 의식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라는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닙니다. 개인의 전문성과 경쟁력에 집중하는 게 반대로 회사를 위한 주인 의식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쉽게 발현되기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회사로부터 신뢰를 쌓게 된 계기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개인이 만들어내는 노력의 가치를 회사에서 적절히 알아주고 활용할 때, 그러한 주인 의식이 지속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제가 회사로부터 신뢰를 쌓게 된 계기는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노력한 부분을 주변 동료들이 알아주고, 그 분야에 새로운 업무 기회를 받았을 때 같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가 바로 ESG 업무입니다. 처음엔 투자 개념으로 접근했다가 ESG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규제라든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공부하게 됐는데요. 어느 날 사장님께서 제가 공부하고 준비한 자료를 보고드릴 기회가

**Business Development Automotive Tech. & ESG Initiative TFT**

지속가능성은 ESG TFT나 전략기획만의 업무가 아닙니다. 모든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 주실 때 세플러코리아의 경쟁력이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플러 가족 모두의 많은 격려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서형진 팀장**

주어졌고, 사장님께서 많은 공감과 함께 제가 제안드린 방향으로 업무를 이끌 기회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회사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회사도 중요하다고 인정해 줄 때, 내 일처럼 해보고 싶다는 주인 의식이 더욱 커졌던 것 같습니다.

**12월 중 해외 파견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들려주세요.**

아시아 퍼시픽 소속으로 싱가포르로 파견입니다. 그곳에서 AP 지역의 지속가능성 전략 업무를 할 예정인데, 현지 동료분들과도 공동의 목표를 이뤄가는 공감대와 성취감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ESG TFT 멤버분들과 더 많은 시너지를 만들어 회사에 더 크게 기여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세플러인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속가능성은 ESG TFT나 전략기획만의 업무가 아닙니다. 모든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 주실 때 세플러코리아의 경쟁력이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TFT 멤버분들이 현업에 추가적인 업무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많은 격려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열정 가득했던 그날의 우리, 빛나는 세플러코리아의 오늘을 그려가다

## 2023 창원공장 노사화합 체육대회

헛들 헛들, 몸풀기 체조에서 오랜만에  
찌뿌둥했던 몸을 펼치며 절로 함박웃음을  
짓는 직원들. 팀별로 맞춘 노랑, 파랑,  
녹색, 빨강 옷을 착용하고 서둘러  
경기를 치를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그어느 때보다 열정 넘쳤던 화합의 장을  
사진으로 담아봤습니다.



## 2023.11.17

지난 11월 17일 창원운동장 보조경기장에는 세플러코리아 창원공장 임직원 1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세플러코리아 노동조합

제60주년 및 사원노동조합 제20주년'을 기념한 노사화합 체육대회를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운동장을 한가득 메운 구성원들의 모습에서 세플러인의 힘찬 기상이 절로 풍겨져 나옵니다. 대회 시작에 앞서, 서로의 얼굴을 익혀가는 과정에 하나같이 들뜬 표정 가득합니다. 부쩍 차가워진 날씨지만 상기된 탓에 추위는 어느새 비켜 가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준비된 프로그램 참여를 앞두고 어느 팀이 이길까 눈치 작전을 펼치는가 하면, 오늘이야말로 우리의 저력을 보여줄 때다 하며 의기투합하는 모습도 간간히 펼쳐집니다. 팀별 대전 일정표를 살펴보고 각자의 역할에 대한 각오 또한 다져보는 세플러인들입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행사. 1MU(볼베어링 MU), 2MU(테이퍼베어링 MU), 3MU(베어링부품 MU), 지원, 이렇게 모두 네 팀으로

구성된 팀별 행렬이 차례차례 운동장 한가운데로 들어섰습니다. 뒤이어 힘찬 박수와 함께 조합기가 입장하고 개회식은 진행됐습니다.

개회 선언, 국민의례 등이 있은 후 이어진 개회사에선 전광배 노동조합 위원장이 단상에 올라 "뜻깊은 자리를 맞이한 데 대한 축하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다음 축사에선 양인희 상무(BD 베어링)가 이병찬 사장님을 대신해 "노사화합과 공존·공영의 기틀을 다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수대표의 선서를 끝으로 경기막은 올라갔습니다.



## Interview



### 박기득 마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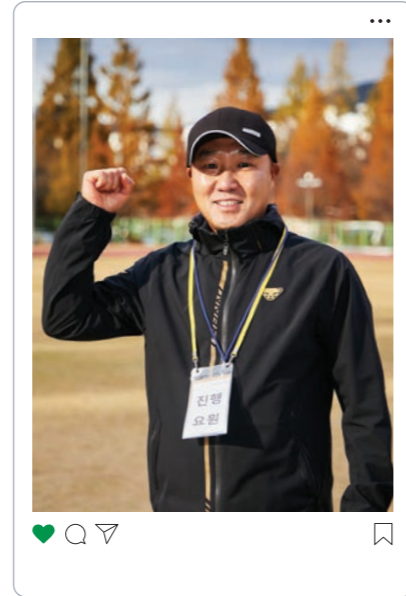
일반직 사원 노동조합 사무국장(프로토타입 센터)

안녕하십니까. 프로토타입 센터에서 MRP 및 IE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기득 마스터입니다.

8년 만에 열린 이번 행사는 노사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 만큼 모든 참가자분들께서 즐거움과 만족감을 안아가는 행사로 기록되길 바랍니다. 특히 이번 대회를 통해 서로 간의 이해가 높아지고 친분이 더 쌓이게 되어 회사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훨씬 더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체육대회는 지난 몇 년간 대외적인 상황으로 행사가 개최되지 못하다가 치러진 만큼 그동안의 아쉬움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전날 비가 내려서 다소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비가 오지 않고 참가자분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춥지 않게 느껴져 다행스러웠습니다.

이런 대규모 행사를 처음 준비하다 보니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 사무국장님, 체육부장님, 차장님의 지원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누구보다 준비에 가장 힘써 주신 박현서 마스터님과 업무지원 및 HR 창원 모든 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 최점식 사원

전문직 노동조합 사무국장(HR 창원)

반갑습니다. 세플러인 여러분. 노동조합 사무국장 최점식 사원입니다.

대내외적으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이번 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창원공장 모든 임직원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 참으로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진 단합 행사여서 경기 진행에 다소 힘들었지만, 팀별 하나 된 참가자분들의 모습을 보며 지금은 무척 즐겁고 행복한 마음만 가득합니다. 앞으로 모든 임직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보여준 모습들이 현장에 복귀해서 업무 진행 면에서나 부서별 화합은 물론 회사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런 단결된 모습에서 좀더 나아가 세플러코리아가 글로벌 기업으로서 위상을 높이는 데 모든 임직원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70년 역사, 노동조합 60주년 역사를 가진 기업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100년, 200년 가는 기업으로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임직원분들과 함께해서 자랑스러웠고 또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세플러코리아여, 영원하라! 사랑합니다, 여러분!



### 정정호 사원

전문직 노동조합 체육부장(단조 세그먼트)

단조 세그먼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정호 사원입니다.

오늘과 같은 의미 깊은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날씨가 화창하게 따라줘 우리를 응원하고 축하하는 듯합니다.

생산 현장을 벗어나 오랜만에 스트레스를 풀기도 했으며, 다함께 모여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회사, 참으로 좋은 회사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였습니다. 이 자리 자체만으로도 뿌듯하고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 큼니다.

저 또한 3MU 소속으로 축구 경기에 참여했는데요. 비록 승부차기 예선전에서 저서 3등을 했지만 무척 흥분되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계주에서 다 함께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응원하던 장면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공동체구나 라는 걸 새삼 느낄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실로 하나 된 우리를 보며 뿌듯함이 정말 큼니다.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앞으로 조합원들과 소통이 더욱 잘되고 회사와 윈윈해서 더욱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0주년 노동조합 파이팅! 세플러코리아 파이팅! 복된 하루 되세요!



### 이상욱 마스터

일반직 사원 노동조합 운영위원(공정기술 베어링부품 MU)

공정기술 베어링부품 MU에서 근무하는 이상욱 마스터입니다.

이번 자리는 오랜 기간 회사 발전을 위해, 사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양 노동조합이 좀더 가까워진 화합의 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바쁜 업무로 지쳐있던 구성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하나의 트리거 역할을 해줬을 줄로 생각이 듭니다.

부상을 우려해 어느 때보다는 축소된 경기로 진행됐지만, 직급·나이·성별을 떠나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짰기에 더욱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열처리 세그먼트가 3MU에 새롭게 조직을 구성했는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서로 통성명도 하고 돈독해질 수 있던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발 업무를 하면 타 부서 분들과 다양한 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제 편을 조금 더 많이 만든 것 같아 향후 업무 활동이 더욱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하.

회사가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노사 간 신뢰를 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이런 자리 많이 만들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세플러코리아, 2024년에도 필승합시다!

# 다양성과 포용성으로 새로운 기회 창출

## 물류

글로벌 시장경제 시대에서 국내 최고 모션 테크놀로지 기업 이력을 써 내려가고 있는 세플러코리아. 이를 이루는 중심에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로 국내외 납품을 담당하는 물류가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힌 사업 구조에서 물류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심으로 회사의 이익 실현에 탄탄한 배경이 되어주고 있다.



### 기본에 충실, 안정적인 고객 라인을 돕는 일등 공신

물류팀은 국내외 세플러 관계사 및 해외 고객사로의 수출 업무 통합 관리를 담당하는 '물류 네트워크 관리'와 납품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품질 관련 문제 해결 및 고객 대응을 담당하는 '물류품질'로 구성된다. 국내는 물론 해외 유럽, 미주, 아시아 태평양 및 중국 지역을 관리하는 총 세 명의 물류 네트워크 담당과 한 명의 물류품질 담당을 두고 있으며, 서울사무소에는 이를 총괄하는 팀장을 포함해 모두 다섯 명이다. 구성 인원은 많다 할 수 없으나 물류팀이 가진 주요 역할로 볼 때 각 한 명이 가진 맴파워는 상당함을 알 수 있다. 회사 이익으로 연결되는 안정적인 제품 공급을 담당하는 만큼 QCD(Quality, Cost, Delivery) 측면에서 많은 이해 가지 수를 고려해야 하기에 물류팀은 본디 가진 역할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납품을 책임 있게 완수해 냄으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안치훈 팀장은 강조한다. 이를 위해 항상 주어진 업무는 기일 내에 완료하겠다는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물류팀은 지금껏 쌓은 많은 성과 가운데서도 지난 2022년 4월 코로나19에 따른 중국 상하이발 물류대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간 일을 가장 뿌듯했던 순간으로 꼽는다. “당시 계약한 운송사가 자국 수출입 제재(lock down)로 인해 운송이 어렵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고객들은 당장이라도 중국에 가서 제품을 들고 오라고 말할 정도여서 고객 라인 중단까지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즉시 경영진에 긴급 운송에 따른 추가 비용은 상황이 해결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한 후, 밤낮으로 운송사와 중국 현지 공장, 국내 고객들과 실시간



안성준 프로

김대성 마스터

엄가영 프로

안치훈 팀장

박하윤 프로



## Distribution

### 물류

물류는 고객 영업 활동의 마지막 단계이기에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납품 과정에서 작은 실수 하나라도 생기지 않도록 모든 직원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안치훈 팀장

업무를 한 결과, 단 1분이라도 고객 라인을 멈추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히 안 팀장은 다양한 이해관계로 엮인 팀인 만큼 타 부서에 협조가 필요한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한 것이 빠른 문제 해결을 돕고 성과를 창출하게 된 주요 배경이 됐다고 말한다. 이는 팀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는 설명이다.

### 임파워먼트에 더해지는 다양성과 포용성

이런 노력들의 결과에 힘입어 최근 팀은 그 역할에 걸맞게 ‘다양성과 포용성(D&I)’을 주제로 워크숍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9월 7일부터 1박 2일간 일정으로 그 첫 번째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 팀장은 “최근 D&I에 대한 관심이 그룹 내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물류팀은 SCM(공급망 관리) 및 Logistics(실행 계획)에 있어 다양한 근무지, 높은 여성 직원 비율, 다른 부서와의 협업이 잦은 만큼 다양성과 포용성이 더욱 폭넓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다 함께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워크숍을 열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물류 직원들과 교류하고 타 부서와의 협업을 더욱더 선도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진행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라고 밝혔다.  
워크숍 참여 인원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별 2~3명씩 선정해 구성했다. 진행은 먼저 ‘다양성과 포용성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현재 팀이 다양성과 포용성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찾고, 이어 ‘이를 채우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그룹별 토론 및 발표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유의미한 결과도 얻게 됐다.

회사 이익 실현에 탄탄한 디딤돌 역할을 잇기 위해 평소에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는 물론 팀원들의 주체성을 돋우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안 팀장은 임파워먼트를 이루는 가장 기본은 “내 삶은 나와 가족 그리고 회사라는 큰 덩어리들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끌어 가야 한다는 생각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것이 어떤 방향이든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을 빼고 생각할 수는 없으며, 여기에 회사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을 더한다면 주인의식은 더 크게 발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의 이런 생각은 팀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서인지 강력한 팀워크를 이루고 팀원 각자가 맡은 업무 영역에서 주체적으로 업무를 해나가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물류 네트워크 관리팀에서 유럽 및 중국으로의 수출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김대성 마스터는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남다른 책임감을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아무래도 이 일은 내 일이다, 내 것처럼 하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한 게 강한 책임감으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런 마인드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돼 주고 있습니다.”

같은 팀에서 아시아 지역 수출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박하운 프로는 팀의 성과 향상 및 문제가 발행했을 때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가 맡은 역할과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했을 때 팀 내에서도 원활한 소통을 돕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는 저만이 아닌 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주 해상 및 항공 수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엄가영 프로 또한 팀원으로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십분 발휘하고자 매순간 자신과의 약속을 정하고 이를 지켜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이를 인정받을수록 업무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제 스스로 업무 목표를 정하고 하나씩 이뤄나갈수록 성취감이 향상되는 것을 느꼈기에 업무에 더욱 충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류품질팀에서 제품의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원인 파악 및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안성준 프로는 단 한 건의 납품 오류도 고객 불만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각오로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저는 제 일에 대한 애정과 성취감, 만족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2023년 단 한 건의 납품 오류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성취감, 만족감이 제가 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 애정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업무를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우리의 목표는 더욱 진일보한 성장과 기회 창출

물류팀 팀원들은 각자의 역할에 맞게, 그리고 팀 전체로서 해나갈 목표 달성을 위해 타의 모범이 되는 솔선수범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업무 스킬을 더욱 높이기 위한 자기 개발 노력도 멈추지 않고 정진 중이다. 김대성 마스터의 경우 업무적으로 영어 활용도가 높다 보니 입사 이후로 꾸준히 전화 영어 수업을 해나가고 있으며, 업무에서 정확성과 전문성을 더욱 키우기 위한 노력에 매진 중이다. 박하운 프로 또한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으며, SAP 교육이 있으면 최대한 참여함으로써 업무 수행에 있어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안성준 프로는 업무 특성상 통찰력과 예측 능력이 요구되어 지기에 모든 일에 ‘What if?’라는 만약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선 틀에 박히지 않는 사고방식과 세심함을 높여 나가려 하고 있으며, 엄가영 프로는 내외부 커뮤니케이션 스킬 향상을 위해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마인드 심기와 원활한 합의점 도출을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연구를 해나가고 있다.

이렇듯 물류팀은 임파워먼트는 더해 각자가 가진 주체성을 더욱 높여나감으로써 2024년에는 회사 성장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 팀장은 “몇 년 동안 진행되어 온 Network Execution Project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물류의 효율성 증대 및 비용 절감을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SPS(Schaeffler Production System)의 Bronze medal 획득을 위한 활동을 24년 1월부터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라고 밝혔다.



## 전지적 막내 시점

우리 팀을 알고 싶다면? 막내에게 물어봐~  
세플러코리아의 빠르고 안전한 납품 관리로 고객 라인의  
순순환을 돕는 물류. 입사 8개월 차 엄가영 프로가  
막내 시점으로 구성원들을 소개합니다.



성실하면서도 활동적인 양띠.  
요즘 유행하는 것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 사내 다양한 세대와도  
잘 어울리고 팀 내에선 오작교 역할을 하는 분.

### 모두에게 전하는 신년 메시지

지난 한 해 다시 새롭게 이직한 회사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많은 도움 주셔서  
모두에게 너무나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처럼 건강하고 서로의 빛깔이  
다채롭게 빛날 수 있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드러운 성품과 온화함의 대명사 토끼띠.  
팀 내 부드럽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도모하시는 팀장님다운 면모를 가지신 분.



충성심이 강한 개띠.  
일에 몰입이 뛰어나셔서 일을 여러 가지 상황에 놓고  
대입하고 의문점을 가질 줄 아시는 분.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용띠.  
팀 내 어려운 이슈가 생길 때  
차분하고 주도면밀하게 팀원들을 리드하시는 분.



낙천적이고 쾌활한 뱀띠.  
명랑하고 호기심이 강해서 두루두루 친한 분들이 많고  
사내 업무 대내외적 여러 방면으로 관심이 많으신 분.

### 30년 후 몰라보게 확 달라져 있을 거 같은 팀원은?

평소 자식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자주 봅니다. 자제 분들이 장성하  
는 날, 팀장님께 사랑받은 만큼 효도도 많이 할 것 같고, 이 계기로 팀  
장님께서 일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더욱 안정된 가정을 이루실 것 같  
습니다. 새해에도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으시길 바랍니다.

### 업무적으로 많이 배울 수 있는 팀원은?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영감과 시너지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입니다.  
업무상 처리하기 힘들거나 곤란한 상황임에도 차분함을 잃지 않으  
시는 모습에 귀감이 되어주십니다. 새해에도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  
길 바라며, 변함없는 모습 기대할게요.

### 절체절명의 순간, 가장 먼저 떠올릴 거 같은 팀원은?

언제나 친절하게 후배를 챙겨주시는 프로님. 덕분에 회사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친  
다고 하던데, 그때에도 프로님이 제일 많이 생각날 거 같아요.  
2024년 우리 함께 더욱 잘 지내길 바라며,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 사막이나 무인도에 떨어져도 잘 살아남을 거 같은 팀원은?

집에 셀프 공방이 있으실 정도로 다재다능한 분이십니다. 업무적인  
면에서나 자기 계발 차원에서도 늘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은 동료들  
에게 많은 귀감이 됩니다. 2024년에도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  
시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 ARCHIVING



기록의 힘은 기억보다 강합니다. 디지털 문명 시대를 맞아 수많은 콘텐츠가 생산되는 것은 이 위대한 힘을 보여 줍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예술가, 성공한 경영인을 봐도 곁에 수첩을 두고 기록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 흔적들이 반드시 필요할 날이 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록에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살아온 인생의 흔적을 살펴봄으로써 더 나은 내일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순간순간이 쌓여갈수록 나라는 사람의 아카이브도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맞은 지금의 현대 문명은 역사의 결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일 더 멋진 당신을 바란다면, 오늘 기록하기를 시작해 보세요.



자기 관리에 있어 빛을 발하는 사람, 감추고 싶어도 드러나는 법이죠.  
다부진 몸매로 못 남성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송인제 마스터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 나는 ( 맨파워 수집가 ) 입니다

Masterplanning 전주  
송인제 마스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공장 송인제 마스터입니다. 2018년 1월 경력으로 입사해 세플러와 함께한 지 벌써 6년 차이고, 2024년에는 마흔이 되네요. 현재 Masterplanning 전주에서 휠 베어링 세그먼트 생산계획 수립(MRP planner)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소 업무를 하며 있어, 동료 간 지냄에 있어 어떤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나요?**

작년에 '마동석'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리 팔뚝이 두껍지 않은데 별크업 하면서 이미지가 그렇게 보였던 거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과묵하게 지내는 편이고 회식 자리에서는 본래의 활동적인 모습으로 돌아가, 회사 안과 밖 두 가지 컨셉으로 살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을 텐데, 마인드컨트롤은 어떻게 하시는 편이신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생산계획 수립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 생산팀과 CS/영업팀 중간에서 업무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조율하는 일이 많습니다. 실시간으로 고객사 납기를 맞춰야 하는 중간

입장에서 힘든 부분도 분명 있겠지만, 이 또한 저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주고 성장하게 만들어 주는 기회라고 생각하기에 크게 힘들다고 느끼진 않는 것 같습니다.

**보디빌더로도 활동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셨으며, 동기는 무엇일까요?**

성격상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를 느껴보야 직성이 풀리는 성향인 것 같습니다. 20대 때부터 헬스는 취미 삼아 조금씩 해왔는데, 문득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은 어디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보디빌딩 대회 출전'이었습니다. 보통 일반인은 보디 프로필을 버킷 리스트로 많이 생각하는데, 대회 준비를 하다 보면 이는 자연스럽게 완성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회에 첫 출전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들었습니다.**

약 5개월 정도 극한의 다이어트 끝에 ICN 대회(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natural 보디빌딩)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지난 5월에 있는 '맨즈 피지크'에서 1위를 하고, '보디빌딩 대회'에선 3위를 거뒀습니다. 도전에 대한 각오를 잊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덕분인 거 같습니다.



**첫 입문 당시 신체 상태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변화라면?**

사실 작년 말 대상포진에 걸려 1주일간 병원에서 링거를 꽂고 있었습니다. 대상포진이 얼굴로 와서 더 늦었다간 시신경과 뇌신경을 건드려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주 6일을 술과 또 이에 따른 피곤함을 잊고자 평소 잘 먹지도 않던 커피를 마셨었는데요. 이 생활을 거의 1년간 하다 보니 어느 날부터 불면증이 찾아오게 됐고, 이것이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된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소 아무리 운동했어도 1년을 그렇게 생활하니 몸이 못 버틴 것이죠. 이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대회 출전의 도전을 실행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대회에 출전해 상도 받고, 보시다시피 건강은 물론 전에 없던 프로필이 완성되었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이었다면 무엇일까요?**

회사 업무와 대회 준비를 병행하는 일정이 체력적으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 6일 운동하고 일요일은 쉬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루에 기본적으로 근력운동은 약 2시간, 유산소운동은 2시간 반으로 스스로 스케줄을 짰고, 하루하루의 계획을 소화하자는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식단 관리는 처음 해본 거였는데, 예상외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1차원적이고 생리적 욕구 중 하나인 식욕 충족이 안 되니까 체지방 커팅을 하면 할수록 신경이 예민한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건드리면 터지기 일보 직전인 시한폭탄처럼 약 5개월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체지방률이 대회 출전 당시 인바디 수치상 4% 이하가 됐을 정도였으니깐요. 혹시 요새 삶이 행복하지 않고 우울감이 있고 즐겁지 않다면, 짧게라도 한 달 동안 식단 관리와 알코올·카페인을 끊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식단이 끝나고 일반식으로 넘어가는 순간 행복감이 밀려오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의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다이어트 한답시고 운동을 했다 안했다 그런 기간을 정해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신조는 '죽기 전날까지 해야 하는 것은 운동과 공부'입니다. 운동을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현재 회사 점심시간 1시간 중의 30분을 사내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으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는 회식이나 약속 등 돌발 상황이 꼭 생기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이런 부분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평일 퇴근 후 운동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은 아침 출근 전 또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하루 20~30분이라도 몸을 풀어준다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디빌더가 된 후 개인적 성향이나 생활면에서 가장 큰 변화라면 무엇일까요?**

겸손한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ENFJ 성격상 자신감은 항상 총만했는데, 이게 겸손함이 채워진 자존감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중량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감소는 물론 마인드 컨트롤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보통 주변 분들이 저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얼마나 몸을 멋지게 만들어서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때마다 저는 정신건강을 위해 하고 있다고 답변드립니다.

**업무나 조직 생활 면에서 달라진 점은 또 무엇일까요?**

자신감이 자존감으로 전환되면서 업무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일을 병행하며 대회 준비하는 힘든 과정을 다 극복하고 감사하게도 좋은 결과까지 얻게 된 것을 돌이켜 보면서 저 자신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내가 할 수 있을까'란 의심은 없어지고, 당연히 할 수 있다는 마인드가 바탕이 되어 '그럼 일정을 언제로 할까'로 바뀌었습니다. 이를 업무에도 접목해 겸손함은 잃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가 궁금합니다.**

최근 마음을 다잡기 위해 독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한 것에 끝장을 봐야 하는 성격이기에 2024년도에는 105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약 3.5일에 한 권씩 읽어야 하는 양입니다. 그리고 등산과 주짓수가 있습니다. 등산은 산림청 지정 100대 명산을 향후 5년 내로 다 찍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후에 히말라야 트레킹을 갈 예정입니다. 주짓수는 새해 시작되고 바로 돌입해 최종적으로 대회 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플러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이 글의 해석은 직접 읽고 느껴 보시거나, 속뜻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격상 항상 자신감은 총만했는데, 이게 겸손함이 채워진 자존감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를 업무에도 접목해 앞으로 겸손함은 잃지 않으면서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려고 합니다.

송인제 마스터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것은 성장, 도전, 자기 발견의 기회로 전개되는 여행의 시작을 나타낸다. 여행을 떠나는 순간은 언제나 설렌다. 그곳이 처음이든 두 번이든 상관없이 첫 발을 들여놓는 순간 이야기도 새롭게 써내려 진다. 여기, 새롭게 여행을 시작한 3인방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다시 시작하는 여행 이야기

## 안산의 미래 동력 신규입사자 3인방



**김정연 프로**  
HR 안산

**김도현 마스터**  
공정기술 안산

**홍준석 프로**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 안산

“지금의 노력들이 쌓여  
더 큰 역할로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준석 프로**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 안산



세플러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사 3개월 차 신입사원 홍준석 프로입니다. 현재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Masterplanning) 안산에서 DCC 플래너 및 IC 수급을 담당하고 있고 Inventory, PFR, Outlook, Credit 등 공장 내부의 데이터를 취합하고 서포트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asterplanning은 엄청 매력적인 팀입니다. 공장 내부에서 연관되지 않은 팀이 없는 만큼 각 팀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한다는 것, 그것이 이 팀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걸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자리인 만큼 더욱 열심히 하여 세플러 안산의 미래를 밝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회사생활에 빠르게 적응해 나가기 위해 우선 유관 부서 직원분들께 인사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도 업무 프로세스를 정확히 익히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덕분에 다양한 방면에서 역량이 커져감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들은 가령, 전산과 관련해서 근무시간이 끝나고도 회사에 남아 그날의 업무를 복기한다거나 퇴근 후 집에서 연습하는 편입니다. 세플러코리아는 세계 큰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온전히 제 이름 석자를 알리는 것이 소소하지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언젠가 지금의 노력들이 쌓여 더 큰 역할로서 회사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Mini Interview

**입사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첫 순간**

근무복을 받았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게 있어 근무복은 소속감을 주는 물건입니다. 물론 자유로운 복장을 착용해도 되지만, 근무복을 입었을 때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저를 발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에게 무기가 되는 취미활동**

오랫동안 운동을 해왔기에 체력이 좋은 편입니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다룸에 있어 유연해졌고, 맑고 건강한 머리로 업무에 임할 수 있어 밝고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하는 편입니다.

**선배(동료)들에게 전하는 응원 메시지**

항상 모자란 저이지만, 늘 따뜻한 말로 격려해주시고 잘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시는 선배 및 동료분들께 감사하단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부단히 노력하여 격려와 용기보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동료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잃지 않고  
직함에 어울리는 직원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 마스터**  
공정기술 안산



2023년 하반기 11월부터 안산공장 새 식구가 된 김도현 마스터입니다. 저는 센서 및 자동화 회사에서 약 9년간 현장 트러블 슈팅 및 자동화 라인 문제 해결 등에 초점을 맞춰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품의 품질 개선 등이 늘 목말랐는데, 그런 점에서 세플러는 국내에 제조 공장을 두고 품질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느껴져 입사하게 됐습니다. 생산성 효율 개선을 위한 생산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 및 시스템을 개선·개발해 나가는 데 전력 다출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입사 후 가장 큰 변화라면 아침형 인간이 됐다는 점인데요. 오전 6시에 일어나 하루를 준비하며 그 어느 때보다 하루를 더욱 짜임새 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은 적응해 나가는 단계이기에 조금 힘들 때도 있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듯 습관화된다면 그 또한 회사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잃지 않고 꾸준히 지켜 나가려 합니다. 회사 동료분들께 인사를 잘 한다든지 혹은 무표정한 표정보다는 좀더 미소를 짓고 상대를 대하는 것 등입니다. 또한 업무에 빈틈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 마스터라는 직함에 어울리는 직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ini Interview**

**세플러코리아, 이래서 좋다**

현장과 사무직 사이가 좋지 않은 회사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에 비해 세플러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소통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작업자의 편의와 최고의 효율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모습은 다른 어떤 회사보다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업무 분야**

본사에서 개발한 제품 솔루션을 현장에 적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품 사용에 대한 피드백을 토대로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장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요즘 나의 최대 관심사**

2024년 1월에 태어날 딸아이입니다. 처음 겪는 일에 많이 서툰 모습을 보이겠지만, 그래도 회사생활을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만의 색깔을 갖추고,  
계속 발전해 나가 회사에 보탬이 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김정연 프로**  
HR 안산



안녕하세요. 입사 1개월 차, HR팀에 소속돼 EHS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연 프로입니다. 저는 대학졸업 연구 논문을 준비하며 환경안전보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과 안전, 보건이 위협을 받으면서 이 일에 책임감을 많이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작업자 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성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기존에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훌륭하게 해내신 업무들을 최대한 이어 받고, 그러한 가운데 저만의 색깔을 녹여서 안산공장의 안전환경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저는 늘 배움의 자세를 지향합니다. 관공서나 협회에서 운영하는 정기적인 교육에 참여한다거나 인터넷과 유튜브의 글과 영상을 수시로 봄으로써 최신 동향과 트렌드도 숙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회사에서 진행하는 직무 관련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은 저의 회사생활에 큰 만족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참석해 회사에 보탬이 되는 인재가 되도록 역량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업무 특성상 현장의 많은 팀 리더분들과 소통할 일이 많은데요. 팀 리더분들과 최대한 친해지기 위해 먼저 다가가 소소한 농담도 던지고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사적인 질문도 하며 친분을 쌓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직원 분들과 친해지고 싶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게 편하게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Mini Interview**

**나에게 무기가 되는 취미활동**

여행과 캠핑입니다. 자연 속에 조용히 있으면 바쁜 일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충분한 심을 누리고 있다는 기분이 듭니다. 이는 회사에서 근무할 때 스트레스를 유연하게 하는 대처 방법이 되고 업무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여 줍니다.

**세플러코리아, 이래서 좋다**

PC Off제를 세플러에 와서 처음 경험하게 됐는데요. 업무시간에 집중력을 바짝 끌어올려서 업무를 보니, 퇴근 후 여가시간을 가족들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돼 이게 바로 진짜 워라밸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회사, 정말 좋습니다.

**회사에 바라는 점**

업무를 진행하면서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던 상황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언제나 열린 마음과 태도로 소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세플러 코리아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플러의 성장과 발전을 향해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 한 해의 끝자락에 남긴 추억 한 장면

## 안산공장 6인의 글라스 페인팅 체험

연말연시가 다가올수록 마음은  
바빠진다. 바쁜 업무 와중에도 미처  
챙기지 못한 가족과 동료, 친구, 지인들을  
돌아볼 생각에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마련. 이럴 때 내 마음을 투영해 줄  
무언가가 있다면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은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



**서로에게 다가가 기억되는 시간**

안산공장에서 자동차로 50분 거리, 서해가 겨울의 시푸른 차가움을 머물고 시원하게 펼쳐지는 곳을 따라가다 보면 '유리섬박물관'이 나온다. 잠시 시간을 내어 유리공예 체험을 하며 현재의 마음을 투영해 보기 좋은 곳이다. 서로를 좀더 알아가는 가운데서도 현재의 나를 비춰 더 밝은 내일을 응원해 보는 시간.

이에 안산공장 6명의 직원이 초대됐다. 고객사에 자재를 납품하고 스케줄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김세훈 프로(Customer Service 안산)와 이다은 프로(Customer Service 안산), 전기안전 관리 겸 설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이한별 프로(설비보전 안산), 벨트 체인 생산 계획을 담당하는 김동철 마스터(생산계획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고객사 대응 및 고객 수요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왕희성 마스터(Customer Service 안산), 생산 공정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이기수 마스터(공정기술 안산)다.

이들과 함께 입구에서부터 박물관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며 체험장으로 향했다. 한 사업장에 있기에 초면은 아니지만, 조금은 어색한 기류가 흐른다. 하지만 초입부터 펼쳐지는 거대하고도 환상적인 조형 작품을 보며 이내 화기애애 서로의 이야기는 뭉게뭉게 피어난다. 서로의 업무를 묻는 것부터 시작해 박물관에 도착하기까지 여정과 대부도 끝자락에 위치한 이곳에 또 언제 와본 적이 있는지, 평소 취미는 무엇인지 등 서로의 하루를 다시 한번 천천히 기록하듯 다가가 본다. 그러자 서로를 이어줄 공통의 관심사를 발견하게 되면서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지기 시작한다.

이한별 프로가 최근 주말마다 등산과 캠핑을 즐기고 있다는 말에 왕희성 마스터가 맞장구치며 "저도 오토 캠핑을 즐기는 편인데, 다녀오면 리프레시가 되고 업무를 볼 때 집중력도 높아짐을 느꼈다" 한다. 외부 고객을 상대하는 일을 하다 보니 전화가 잦을 수밖에 없어 다소 고충을 느낀다는 왕희성 마스터는 오늘의 외출이 너무 반갑다. 몸과 마음이 이완되니 스트레스가 한결 날아가는 게 느껴진다. 거기에 같은 공장 식구지만 안면이 없던 동료들과 얘기 나눌 좋은 기회가 됨은

물론 지금껏해보지 못한 유리공예 체험이라니 내심 기대가 크다. 이한별 프로 또한 "평소 잘 마주치지 못한 분들과 오늘을 계기로 친해질 수 있을 듯한 기대에 기분이 너무 좋다"고 말한다.

김세훈 프로는 평소 기타와 피아노 등 악기 연주를 취미로 삼고 있다고 소개하자 옆에 서서 걷던 김동철 마스터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언제 한번 드럼을 배워보고 싶었는데, 흑 드럼은 치는지?"를 묻는다. 이에 김세훈 프로가 "이참에 한번 배워봐야겠다"며 유쾌한 답변을 해준다. 사실 김동철 마스터는 가끔 시간이 나면 가족들과 수영하는 정도 외 별도의 취미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여건이 된다면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해보고 싶은 게 바람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시간이 소중한 기쁜 전환이 되고 있다고 한다. 야외조각공원을 지나자 염전 사이로 갈대숲이 펼쳐진다. 고요한 풍경을 잠시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 체험에서 무엇을 담아내고 싶은지를 물었다.

이기수 마스터는 아들이 열한 살인데 돼지를 워낙 좋아해서 새해 된 기념으로 복돼지를 그려 선물해 보려 한다. 김동철 마스터 또한 딸아이가 열 살인데 오랜만에 아빠의 마음을, 희망과 자유를 상징하는 파란 하늘에 담아 전해 볼까 한다. 왕희성 마스터와 김세훈 프로는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서 꽃이라고 밝혔다. 이한별 프로는 자신의 이니셜을 의미심장하게 담아볼 생각을, 이다은 프로는 연말 친구들과 송년 파티를 보낼 예정인데 그때 활용하기 좋을 트리를 자신만의 개성을 살려 담아보려 한다. 자신에게 또는 가장 소중한 가족, 친구에게 선물할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은 설렌다. 어느 정도 이야기가 무르익을 무렵이 되자 눈 깜짝할 새 체험장에 다다랐다.

**투명한 글라스 위에 투영해 보는 현재의 바람**

샌딩, 글라스 페인팅 등 여러 체험 아이템이 마련된 가운데 오늘 도전해 볼 체험은 글라스 페인팅이다. 먼저 디저트잔, 음료수잔, 접시 중 각자 그려보기로 한 아이템을 담아내기에 적절한 것을 골라본다. 이어 삼삼오오 짝을 지어 앉자, 체험 진행 강사가 작업 과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몇 가지 주의 사항을 남긴다.

유리 위에 붓으로 그림을 그린 후 오븐에 구워내는 것으로 진행되는 글라스 페인팅은 각자 고른 잔 또는 접시 모양의 도안에 원하는 그림을 연필로 그리는 것부터 시작된다. 도안이 완성되면 오븐제 안쪽 면에 밀착시킨 후 붓으로 유리 전용 물감을 사용해 페인팅한다. 물감은 사용 전 꼭 한 번씩

**왕희성 마스터**

저도 몰랐던 재능을 오늘에서야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하.

**김동철 마스터**

딸아, 푸른 하늘에 아빠의 마음을 담아왔다. 희망 가득한 내일을 그려 가길~

**김세훈 프로**

어린 시절 추억이 새록새록 피어나는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이다은 프로**

친구들아, 기다려! 곧 보여줄게. 변치 않는 우리의 우정을 기약하며~♡

**이기수 마스터**

아들아, 새해에도 돼지와 함께 더욱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다오☆

**이한별 프로**

제 이름 석자 굵게 남기는 인생 기록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흔들어서 사용해야 하며, 물은 절대 사용해선 안 된다. 물이 필요할 때는 컬러를 바꾸고자 할 때이며, 붓끝에 남은 물기를 휴지로 흡수시켜 어느 정도 제거한 후 페인팅해야 한다. 처음 컵 위에 안료를 발랐을 땐 색이 열게 나올 것이며, 안료를 말린 후 여러 번 덧칠할수록 색은 짙어진다. 다만 물기가 묻어 있거나 물감이 두껍게 발리면 오븐에 구웠을 때 그을릴 수가 있으니 얇게 바르는 것이 추천된다. 작업이 여기까지 되면 마지막으로 오븐에 구워내는 것으로 작품은 완성된다. 설명이 끝나자 각자 도안에 원하는 그림에 대한 스케치 작업에 들어갔다. 김세훈 프로와 왕희성 마스터는 수를 놓듯 화려한 꽃을, 이기수 마스터와 김동철 마스터는 아기자기한 느낌의 돼지와 푸른 하늘을, 이다은 프로는 양장맞은 캐릭터 느낌의 트리틀, 이한별 프로는 큼지막하게 자신의 이니셜을 그려냈다. 도안이 어느 정도 완성되자 붓으로 물감 입히기에 들어갔다. 원하는 색이 올라올 때까지 거듭되는 붓칠과 기다림이 필요한 시간이다. 다들 진중한 표정으로 물감이



마르기를 기다렸다 다시 칠하기를 반복했다. 20여 분 시간이 흐르니 한 사람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작품이 완성된 것이다. 그쯤 되니 서로의 작품을 번갈아 보며 한마디씩 한다. “컬러감이 너무 예뻐요”, “작품이네요, 작품”, “이거 아까워서 어디 쓰겠어요? 자랑해야지.” 그러다 누군가 “우와, 왕 마스터님은 오늘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신 거 같은데요?” 하자 모두의 시선이 왕희성 마스터의 작품에 쫓인다. 말 그대로다. 어디 시중에서 판매하는 듯한 유럽풍 컵을 완성해 냈다. 활짝 핀 해바라기꽃이 금방이라도 행운을 안겨줄 거 같다. 그러자 왕희성 마스터는 “저도 몰랐던 재능을 오늘에서야 발견하게 됐네요” 하며 몹시 수줍어한다. 이기수 마스터와 김동철 마스터 또한 아이의 시선에 맞게 감성적이고도 따뜻한 색감이 묻어나는 작품을 완성해 냈다. 한눈에 봐도 따뜻하고도 진심 어린 아빠의 마음이 전해진다. 이다은 프로와 이한별 프로, 김세훈 프로는 각자의 목적과 개성이 드러나는 작품을 그려냈다. 다들 자신이 직접 만들어낸 작품을 들여다보며 뿌듯해하는 표정을 짓는다. 마음은 정갈해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 또한 가득하다.

### 기억에서 기록으로

오븐에 들어간 작품이다 구워질 때까지 잠시 유리공예 시연과 예술작품을 관람하는 동안 다들 오늘 이 자리가 너무도 의미미하다고 말한다. 그동안 몰랐던 재능을 발견하게 된 것 같다는 왕희성 마스터부터 어릴 때 그림을 그렸던 추억을 다시 떠올려보게 됐다는 김세훈 프로, 지금의 이 순간이 몇 년이 지나도 계속 떠오를 거 같다는 김동철 마스터, 회사 동료들과 한자리에 모여 유리공예를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인상 깊은 하루로 기억될 거 같다는 이다은 프로 등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기억에 차곡차곡 저장하는 시간을 갖는다. 모두들 지금을 시점으로 더 많은 기억, 기록 활동으로 더 멋진 내일을 다짐해 본다. 이기수 마스터는 이를 보며 “올해도 막바지인데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고, 2024년에도 세플러 가족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다. 새로운 변화가 올 듯하는데 다들 잘 대응해서 다 함께 발전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드디어 완성된 작품이 나왔다. 이를 손에 들고 함박웃음을 지으며 기념사진을 담아보는 세플러인들. 오늘의 경험이 뇌리에 남아 해가 바뀔수록 더욱 선명하게 떠오르길 기대해 본다.

회사 동료들과 한자리에 모여 유리공예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뜻깊은 순간,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 또한 가득하다. 모두들 지금을 시점으로 더 많은 기억, 기록 활동으로 더 멋진 내일을 다짐해 본다.



**매일 새롭게**

## 새날의 이정표, 다시 한번 아로새기며

연초가 되면 집집마다 가훈이나 좌우명을 하나씩 들이기 마련입니다.  
잘 세운 가훈 하나는 한 가정에 값진 보약과도 같지요.  
2024 연초를 맞아, 다짐으로 아로새긴  
세플러 임직원들의 가훈과 함께 우리 가족의 가훈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갖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자**

**하면 된다**



송인제 (Masterplanning 전주)

2018년 경주 최부자집 고택 육훈(六訓)을 보고 적잖이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고민 중이었던 저는 이를 계기로 우리 송씨 집안만의 가훈을 만들게 됐는데요. 제가 살면서 힘든 시기에 체득한 인생 교훈과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하면서 얻은 깨달음을 정리해 보는 과정을 통해 결국 육훈으로 명료한 문장을 끌어낼 수 있었고, 5년 전부터는 가족 모두가 볼 수 있는 거실에 두고 매일매일 되새기고 있습니다.

**먼저 베풀어라. 운동하라.  
책을 가까이하라. 사색하는 시간을 가져라.  
죽기 전까지 계속 공부에 매진하라.  
실력이 자산이다.**



##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임지숙 (Customer Service 전주)

저희는 아이가 없는 2인 부부 가족으로, 몇 년 전 드라마에서 나왔던 한 구절을 하나의 가족으로서의 가훈, 한 개인으로서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결과는 누구도 100% 장담할 수 없고, 인생엔 예상치 못한 반전 그리고 기적이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 보자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마주했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는 다짐의 의미를 지닌 이 말을 우리 부부는 정신적 버팀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무한불성**  
無汗不成

## 십년 고생 오십년 행복



백상근 (생산물류 창원)

십년 동안 배우고 노력하면 그 뒤 나머지 오십년은 큰 불행 없이 행복하게 살 것이다. 즉 젊어서 고생을 하더라도 나이 들면 반드시 행복해질 것이니 게으름 피우지 말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자 하는 것이 우리 집 가훈입니다.



김경훈 (볼베어링 세그먼트)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장인어른께서 한자로 써주신 우리 집 가훈! 무한불성을 가슴에 새기며 열심히 살아가자고 다짐해 봅니다. 장인어른! 아버님~, 보고 싶습니다!!



# 知足이면 可樂이라

## 하두호 (전략기획)

아버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던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알면 인생이 즐거워진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목표를 가지고 항상 도전하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으나 너무 욕심이 과해서 이룬 것에 대해 자기만족을 하지 못하면 생활이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작은 것이라도 만족을 느낄 줄 알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이어 나가야 인생을 즐겁게 지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박지원 (HR 창원 환경안전)

‘모든 일은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좋게든 나쁘게든 펼쳐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하고자 하는 일이 좋게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 바뀔 수 있습니다. 어지럽고 복잡한 마음을 스스로 잘 살펴 보면서 올바르게 행하도록 노력한다면 우리 삶도 긍정적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심청사달 心清事達

마음이 맑으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Never give up!  
And step by step

## 박경미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 안산)

끈기 있게 도전하고 시도하면 못 할 게 없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차근차근 조금씩 발전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그 노력의 빛이 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쉽게 포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와 함께 작품을 만들어서 방문 앞에 걸어 두었습니다. ^^)

## 권혁동 (BU 메인 베어링 평가&해석)

‘한결같이 부지런하면 세상에 어려움이 없다’는 의미로, 부지런함에 대한 명언입니다. 중국 남송의 대유학자로, 우리나라에선 주자로 불리는 주희의 시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 중국의 속담처럼 알려져 있어요. 고 정주영 회장과 박정희 대통령도 좋아하던 문구입니다.



# 성공하기보다 성장하는 삶을 살자!



## 이재선 (전주 물류)

우리 사회는 화려하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을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공의 기준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공을 꿈꾸지만 걸이 아닌 내면이 성장했을 때 우리는 성취감을 느끼고 행복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성공을 강요하는 삶이 아닌 성장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가훈을 짓게 되었습니다.



# 일근천하 무난사 一勤天下無難事

## 뉴스 하이라이트

세플러코리아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세플러+원>에서 세플러코리아의 소식을 모아 소개합니다.



### 이병찬 대표이사, '2023 외국기업의 날' 산업포장 수상

지난 11월 21일(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외국기업협회가 주관하는 '2023 외국기업의 날' 시상식이 개최되었습니다. 각 글로벌 기업 대표 및 임직원, 관계 공무원, 주한 외교 사절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 동안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한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 훈·포장 수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병찬 대표이사는 창원·전주공장 투자, 국내 베어링 개발 및 양산 활동,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 공헌 활동 등을 통해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수상했습니다. 더불어 수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소회를 밝혔습니다.

“세플러코리아의 국내 투자부터 사회 공헌, ESG 활동들이 국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임직원들과 다 함께 이룬 결과라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이 사회와 국가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늘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 세플러코리아, 세아베스틸과 업무협약(MOU) 체결

세플러코리아가 세아베스틸과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세플러코리아 구매 사업부 주관으로 생산제품 원소재 비율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철강'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플러코리아는 세아베스틸에서 제시한 재생에너지 투자계획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로드맵을 바탕으로 고청정·고강도 베어링 소재를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세플러코리아와 세아베스틸은 국제 환경 성적 표지(EPD) 인증 등을 통해 생산품목별 전 과정평가(LCA) 체계 운영을 협약했습니다. 세플러코리아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세플러그룹 2040 기후중립 목표 달성을 기대하고 있으며, 철강 주요 공급사인 세아베스틸과 ESG 네트워크 및 Sustainability 전략의 투명성을 형성할 예정입니다.



### 세플러 OPTIME, LG유플러스 BIZ DX+체험관 전시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1층에 위치한 BIZ DX+ 체험관에 세플러의 OPTIME이 전시되었습니다. LG유플러스의 B2B 대표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DX솔루션 체험관에는 ▲통합관제센터 ▲생산/설비 모니터링 ▲탄소배출·물리보안 등을 주제로 한 총 6개의 구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 세플러의 OPTIME은 생산·설비 핵심 솔루션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스마트팩토리에서 예지보전은 설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진단을 통해 최적의 설비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고, 통계와 분석으로 공장의 다운타임을 줄여 비용 손실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세플러의 OPTIME은 펌프나 팬 같은 제조 현장의 수많은 회전 설비를 한번에 관리할 수 있는 설비예지보전 솔루션입니다. 체험관에서는 설비예지보전 시스템으로 모터의 전류, 전압, 진동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고장을 예측하고, 정비 시점을 확인해 제품 생산 중단을 예방하는 OPTIME 운영 프로세스도 영상을 통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플러코리아, 서울사무소 임직원과 함께한 '사랑의 떡만들기'

지난 11월 24일(금) 세플러코리아 서울사무소에서는 임직원 사회공헌 활동으로 '사랑의 떡만들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떡 만들기를 통해 아동양육시설아이들에게 직접 만든 바람떡과 생활용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내 NGO 단체 '함께하는 사랑밭'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50여 명의 세플러코리아 임직원은 여의도 서울사무소 아고라 공간에 모여 직접 캐릭터 바람떡을 빚어냈습니다. 이 자리에는 오토모티브 애프터마켓 사업부에서 후원하는 KLPGA 박지영 프로골퍼도 함께 했습니다. 정성을 담아 만들어진 캐릭터 바람떡 70세트는 250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과 함께 인천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인 '해피홈'에 따뜻한 마음으로 전달되었습니다.



### 안산 사업장,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지난 10월 16일(월) 안산 사업장 근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18년 이후 무려 5년 만에 진행된 이번 체육대회는 안산 단원구에 위치한 와동 인조잔디구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열정팀, 희망팀, 도전팀, 사랑팀으로 나뉘어 다양한 팀 대항 경기들이 치러졌고, 가장 높은 점수가 걸려있던 계주를 석권한 열정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안전을 위한 준비 운동으로 시작해 무려 다섯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모두가 몸도 마음도 더욱 건강해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임직원들은 오랜만에 임직원이 단합해 즐길 수 있는 자리였다고 만족했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 Thanks & Quiz

## 기자단

- 서울 박지수 기자, 김유정 기자
- 창원 기대환 기자, 손강우 기자
- 안산 최진경 기자
- 전주 이세영 기자, 최규철 기자
- 연구소 김현용 기자

## 편집실

- 커뮤니케이션 브랜딩
- 윤솔지 마스터, 김재정 프로

## 지난 호 당첨자 명단

- 엄가영 (물류 네트워크 관리)
- 강승백 (Key Account Manager-Chassis Systems)
- 김태우 (CVA)
- 이정환 (설비보전 안산)
- 김성완 (BU 엔진 컴포넌트 엔지니어링)
- 최춘현 (설비보전 안산)
- 박정수 (공정기술 전주)
- 이용철 (품질보증 전주)
- 한민수 (업무지원 전주)
- 서성민 (테이퍼롤러베어링 세그먼트)
- 정혜윤 (기계 설계)
- 이동혁 (설비 조립)

## Quiz 1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요?

16	06	68	88	?	98
----	----	----	----	---	----

- ① 08
- ② 87
- ③ 90
- ④ 93

출처: SW융합기술지원센터

## Quiz 2

주인은 아니지만 일이나 단체에 대하여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은?

- ① 탄코노미
- ② 주체사상
- ③ 주인 의식
- ④ 주도정신

## 지난 호 정답

- Quiz 1. ①번
- Quiz 2. ③번

## 참여 방법



yoonslt@schaeffler.com

보내실 때  
퀴즈 참여/이름 /사업장 /부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 주세요.

응모 마감  
2024년 2월 15일까지

참여 방법  
모든 콘텐츠 참여는 휴대폰에서 문자 보내기로 보내주세요. 전화번호 입력창에 전화번호 대신 담당자 메일을 넣어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We pioneer motion

## 세플러코리아 이병찬 대표이사 산업포장 수상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외국기업협회 주관  
'2023 외국기업의 날' 기념 산업포장 수상

세플러코리아는 창원·전주공장 투자, 국내 베어링 개발 및 양산,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 공헌 활동 등으로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포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난 70년의 역사 속에서 축적한 가치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약속하는 세플러코리아가 되겠습니다.